

하계 일본의 「사사형」 후나다마와 비슷한 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곳에는 서낭당이 공동체의 신생아의 탄생을 관장하는 것과 같이, 새로 만든 배라는 새로운 공간의 탄생을 관장한다는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신체의 천을 어선소유자의 아내가 만드는 의미도 그 여성에 의한 어획을 요구한다고 하기보다, 여성의 새로운 혼을 낳는 힘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해녀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도면의 어로형태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어가의 부처 관계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自然과 관련된 生業研究의 最前線

스가 유타카(菅豊)*

목 차

- I. 머리말
- II. 생태민속학의 조류
- III. 민속자연지의 조류
- IV. 환경민속학의 조류
- V. 정리

I. 머리말

일본 민속학에서 자연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연구의 분야, 영역, 대상으로 확정하게 된 시기는 그다지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물론 오래 전부터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한 논의는 있었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의의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일본민속학의 학회지 『日本民俗學』에서는 1975년 100호를 맞이하여 기념 특집으로 연구동향의 게재를 개시하지만, 자연을 연중행사와 통과 의례, 신앙, 전설, 민속예능 등과 병립해서, 연구영역으로서 받아들인 것은 1992년의 190호가 처음이었다. 그 뒤 계속해서 최신 1998년 213호에서 「자연(생태·환경)」이라고 하는 확고한 연구 분야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거의 10

* 도쿄(東京)대학 교수

년 동안 자연이라는 말이 학계에서 계속해서 인지되고 있지만, 그것은 환경문제가 세계적인 규모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사회의 외재상황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 영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내향적이었던 일본민속학이 사회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속학에서 다루어온 자연은 사유(思惟)의 소산으로서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명백하게 실체적 물상(物象)적 존재로서 파악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로 다루어온 자연은 동·식물, 물, 바람(공기), 흙, 돌 등 실체적(實在的) 존재와 산, 바다, 강이라는 것들이 포괄한 구성체(경관과 풍토)로서 그 자체는 고전적인 민속학으로 자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빈번하게 받아들여져 온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민속학에서 원래 단편적인 분석의 객체로서 받아들여온 자연을 전체성을 가진 자연이라는 말로 묶었다. 환경, 노동 등에 관한 근·현대에서 생겨난 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 논의는 자연이라는 전체개념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전체개념으로 바로 묶어버림으로서 그려지는 인간의 새로운 생활상을 문제삼은 것이다.

자연을 민속학에서 받아들인 것은 지금까지 민속학에서 다루지 않은 대상을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민속학적 지견을 현대사회에서 응용하려는 실천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민속학에서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 제일 유효한 분야는 일본의 민속학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업과 사회연구분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으로서 실체적, 물상적(物象的) 자연이 제일 구체적으로 문제되어진 분야로서, 생업은 자연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사회는 자연으로의 관계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과 관련 있는 생업과 사회 시스템연구의 최전선(最前線)에 대해서 소개하지만, 그 상황은 일본의 민속학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다.

II. 생태민속학의 조류

1980년대 말 이후의, 물상적(物象的) 자연을 둘러싼 민속연구는 「생태민속학」, 「민속자연지」, 「환경민속학」 등의 3가지의 조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1의 조류로 노모토(野本寬一)의 「생태민속학」을 들 수 있다. 노모토의 사업은, 생업, 사회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민속학일반으로 다뤄진 정보를 넓게 수집, 민속지의 새로운 제시의 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노모토는 생태학적 용어와 개념을 원용해서 「생태민속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창하고¹⁾, 90년대에 크게 발전시켰다.²⁾

그러나 그 연구는 생태적 민속현상을 민속학의 대상으로 하는 의식, 그리고 생태학의 개념을 민속학으로 하는 자의성(恣意性),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평을 받고 있다.³⁾ 그리고 그것은 또 「자연」 「환경」과 인간의 관계성을 처음부터 공생적인 것으로 예찬한 점—예정조화적(豫定調和的)—, 조금도 생태학과는 일치되지 않는 역사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원론 즉 고대와 문제를 환원하는 이해 범용 방법론적 검증 없이 적용하는 점—역사환원적(歷史還元的)—에 있어서는 비평을 면할 수 없다.⁴⁾

1) 野本寬一, 『生態民俗學序說』(일본: 白水社, 1987)

2) 野本寬一, 『共生のフォークローア』(일본: 靑土社, 1994) 野本寬一, 『海岸環境民俗論』(일본: 白水社, 1995)

3) 篠原 徹, 書評 「生態民俗學序說」, 『日本民俗學』, 170(일본: 日本民俗學會, 1987), 128~136쪽.

4) 본 발표에서는 거듭 역사환원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자면, 발표자는 민속학에서의 역사적인 이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자는 역사적인 이해가 현재 존재하는 또는 근대의 변혁기에 쇠약해진 민속사상의 재구성, 해석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또 그러한 역사적인 시점을 들지 않고 서는 민속사상의 현재적인 의미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에서는 “민속사적 접근”이라고 표현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그 실증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넓은 뜻에서의 역사학 안에서 방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그 의미에 있어서는 문헌사학에서 빠진 자료, 시각(視角)을 제공하고 그것과 통합되는 것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상을 형성하는 수법으로서 역사학 안에 존립 할 수 있다. 민속학의 시작은 여기에 목표로 두었지만 학문으로서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역사학으로 통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

그러나 그 연구에 포함된 자료는 결점을 보완한다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노모토의 「생태민속학」은 이론적 결점이 아닌 문화의 기술로서의 우수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인간과 자연과 관계 있는 세심한 정보를,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민속을 이해하는 방향성을 민속학계뿐만 아니라 널리 독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같은 시점에 근대의 노모토는 일본 시코쿠(四國)의 고치현(高知縣)에서 『사람과 자연과 시만토강 민속지(人と自然と四萬十川民俗誌)』⁵⁾를 정리해서 하천이라는 자연을 축으로 그에 따라서 민속을 정리한다는 민속지 작성의 수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만토강 유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강을 둘러싼 민속을 남김없이 찾으려고 하는 노모토의 패기는 충분히 반영되었고 그 자료의 분량면에서도 역시 압도적이다. 이런 노모토의 「생태민속학」의 장점을 이번 연구에서 계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유감스럽게도 노모토의 「생태민속학」의 난점도 이어 오고 있다.

먼저 노모토가 이전의 민속을 고대와 기층(基層)으로 쉽게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민속학의 역사환원 악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게다가 민속사상을 쉽게 환경과 예정조화적(豫定調和的)인 것으로 이해하는 점도 그렇다. 특히 신앙과 축제, 전설과 같은 대상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를 연못(機織り淵)」⁶⁾이라는 전설이 시만토강 유역에서 전승되

에 오히려 역사성의 문제로 민속학은 곤란에 빠졌다고 발표자는 생각한다. 발표자가 민속학에서 역사를 다룰 때 부정하는 것은 현재 민속사상을 계속 다루면서도, 역사는 이를 아래 고대, 극단적으로 선사시대에서 기원과 계보 해석 방법을 찾아 그것을 일본문화의 기층, 심층이라고 표현해 왔다는 점이다. 또는 현재도 그런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일부 민속학자의 태도이다. 그곳에서 실증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방법론적 검증이 민속학에서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속학이 아카데미즘 가운데서 그 존재를 용인(容認)받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현재의 민속사상(事象)이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 또는 고서적 가운데 나타나는 민속과 유사할 때, 이것을 동등한 민속으로 해석하는 소재로 삼는다면, 계보를 따지는 일 등에 심취해버린 민속학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망상하는 학문이라고 지탄을 받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다.

5) 野本寬一, 『人と自然と 四萬十川民俗誌』(일본: 雄山閣出版, 1999)

6) “베를 연못”이라는 전설은 여울이나 연못 깊은 곳에서 베를 짜는 소리가 들린다. 또는 그곳에 베를 짜는 여인이 있었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을 민속학자는 고대의 축제 때 깨끗한 여성이 수면 위 자리에서 신의 의복을 짜는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물 깊은 곳에서 베를 짜는

었지만, 생각한 끝에 노모토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는 물가에 베를 걸고 베를 짜면서 신을 맞이하는 여인. 베짜는 여인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신을 맞이하여 신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곧 그 모습이 수신(水神)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⁷⁾

이와 같이 민속학적인 전설의 고전적인 해석법이, 이 지역의 민속을 이해함에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야기로서 존재하는 지금의 전설이 고대의 신을 맞이하는 여인의 존재와 그것이 수신으로 변용하는 역사과정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전제를 가지는 해석법은 어디까지나 실제에서 분리해서, 논의가 가능한 모델론으로 시대성과 지역성이라는 문제를 근본으로 사상(捨象)한 끝에 이루어진 연구자의 한정적인 논법이다. 이 해석법으로 이전의 민속을 결정한다면 일본 전국의 어느 민속도 모두 간단하게 단순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역시 「고대」의 것은 고대에 맞추어 논의해야 하고, 「현대」의 것은 현대에 맞추어 「사실적으로」 소급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러한 연결은 매우 신중하게 역사자료의 비판이 이루어진 후에야 성립될 수 있다.

노모토는 또한 이처럼 여울의 전설에 수질보전, 환경보전의 민속사상이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여울이 외포전설(畏怖傳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의 무절제 한 관계를 제어한다. 그것은 어류의 종자를 보전하는 장소로서 여울을 보장하는 것과도 연결되며, 아이들을 수난(水難)에서 지키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관 파괴를 제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⁸⁾

전승과 결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稻田浩二他編, 『日本昔話事典』(일본: 弘文堂, 1977), 741쪽.

그러나 일본 각지에서 널리 전해진 이 전설을 그것처럼 일원적인 시점으로 고찰하면, 전국 수십 가지의 “베를 연못” 전설이 전해진 곳에서는 그 고대의 각각 수십 명의 여성의 존재를 상정(想定)할 수밖에 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민속상을 그려내게 된다.

7) 野本寬一, 『人と自然と 四萬十川民俗誌』(일본: 雄山閣出版, 1999), 271쪽.

과연 전설에 따라서 실제로 자연이 지켜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어 있지 않다. 만약 가정해서 사람들의 자연과의 관계가 전설에 의해서 제어되고 그것이 실제로 자연의 변화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그 곳에서 자연의 의의를 수질보전, 환경보전의 민속사상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론으로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신앙, 옛날이야기에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현실적으로 신앙이 존재하는 장소, 예를 들어 신사에 자연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연 또는 부작용적인 삼의적(三義的), 사의적(四義的)인 관계 성일 수밖에 없다. 먼저 수질보전, 환경보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예전에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에서 신앙과 전설이 형성된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노모토의 사고법이 현대적인 환경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대인이 배운 것이며, 그 사고법에 노모토가 무의식적으로 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모토의 「생태민속학」에서 발전된 근래의 업적은 아직 역사환원적 경향과 예정조화적 경향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노모토가 실수를 이해하고 현대의 자연을 둘러싼 생활의 파괴 상황에 반항하는 운동에까지 이르러, 전략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단지, 실제로 그와 같은 운동론의 전략으로 고조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II. 민속자연지의 종류

일본의 자연을 둘러싼 민속연구에 있어서 다음으로 주목하는 제2의 종류로서, 시노하라(篠原徹)가 추진한 「민속자연지」이다.⁹⁾ 이 시노하라는 최근 자연을 둘러

싼 노동과 기술을 고찰하는 논문집 『민속의 기술(民俗の技術)』¹⁰⁾을 편집했다. 거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국면을 가져온 마이너 서브시스템스(minor subsistence)라는 개념이 제창되어 있다. 이 개념의 제창자는 인류학자인 마쓰이(松井健)으로 그는 마이너 서브시스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집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생활활동의 음지에 있으면서도 아직 면면히 이어오는 것으로, 부차적인 것이라는 평가조차 받지 못하는 아주 적은 경제적인 의미로 여겨지는 생업...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소멸되어버려도 그 집단이나, 그런 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단위세대에 있어서도 커다란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놀라울 정도의 정열로 인해서 계승되어 온 것.¹¹⁾

이러한 시점이 왜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의 지역에서, 또는 한 인간이 다양한 자연자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복합적인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실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민속학에서는 본업과 부업이라는 경제적인 공헌도를 구분하고, 경제적으로 우위의 활동이 문화적으로도 우위의 활동이라고 먼저 인정해 왔다. 또 연구자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했다. 그 상황을 다시 문제 제기하면서 즉 자연을 둘러싼 활동의 분량이 아니라 활동의 질에 대한 의문이다.

보통 생업 등의 자연을 둘러싼 활동의 시점은 생태학적, 경제학적인 양적인 측

19 篠原 徹, 『風土の民俗學』,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일본: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89), 41~60쪽.

篠原 徹, 『聞き書きのなかの自然』, 『日本民俗學』190(일본: 日本民俗學會, 1992), 27~37쪽.

篠原 徹, 『環境民俗學の可能性』, 『日本民俗學』2000(일본: 日本民俗學會, 1994), 111~124쪽.

篠原 徹, 『海と山の民俗自然誌』(일본: 吉川弘文館, 1995)

篠原 徹, 『自然觀の民俗』, 古家信平他編 『現代民俗學入門』(일본: 吉川弘文館, 1996), 30~40쪽.

10) 篠原 徹編, 『現代民俗學の視點1 民俗の技術』(일본: 朝倉書店, 1998)

11) 松井 健, 『マイナー・サブシステムの世界』, 篠原徹編 『現代民俗學の視點1 民俗の技術』(일본: 朝倉書店, 1998), 248쪽.

8) 野本寛一, 『人と自然と 四萬十川民俗誌』(일본: 雄山閣出版, 1999), 272쪽.

9) 篠原 徹, 『自然・生態・民俗』, 『民俗學評論』28(일본: 大塚民俗學會, 1988), 10~20쪽.

면에 치중하고 있다. 민속학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을 둘러싼 민속연구 중에서 그 양을 기점으로 하는 연구가 주류를 차지했으며, 또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업의 질적인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 그것을 다시 이해한 새로운 시점이 마이너 서브시스템스에 대한 시점이다.

마쓰이는 1. 생산에서 소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3. 단순한 기술수준에서 고도의 기법을 찾고 그 성질에서 매력을 느낀다. 4. 단순한 경제적인 의미로는 환원되지 않는다. 5. 공간적·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집중하기 위해서 자원을 결핍시키는 것은 아니다. 6. 신체성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서로 관계하는 방법 본래의 위상관계(位相關係)를 깊이 인식시킨다. 라고 해서 마이너서브시스템스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업을 이해한다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 또는 화폐의 획득을 위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고뇌하는 인간생활상을 더욱 풍족하게 그럴 필요성이 강요된 것이다. 마쓰이는 오키나와(沖繩)의 새 사냥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¹²⁾ 또 스가(菅)는 현대에서 경제가치를 잃은 전통어로의 계승동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 서브시스템스의 개념을 응용했다.¹³⁾ 거기에서는 생업과 노동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원동력으로서, 내재하는 「즐거움」의 요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승문화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생각은 유럽적인 「노동은 인간을 소외한다」라는 노동관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서 앞으로 존재할 노동의 모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V. 환경민속학의 조류

마지막으로 자연을 둘러싼 민속의 중요한 연구로서 제3의 조류 「환경민속학」

- 12) 松井 健, 『マイナー・サブシステムの世界』, 篠原徹編 『現代民俗學の視點1 民俗の技術』(일본: 朝倉書店, 1998) 松井 健, 『文化學の脱=構築』(일본: 榕樹書林, 1998)
- 13) 菅豊, 『深い遊び-マイナー・サブシステムスの傳承論』, 篠原徹編 『現代民俗學の視點1 民俗の技術』(일본: 朝倉書店, 1988), 217~246쪽.

에 대하여 논한다. 「환경민속학」이라는 말은 노모토의 「생태민속학」론 에서도 다루고 있지만¹⁴⁾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고 또한 실태적인 분석에 의한 것은 도리고에(鳥越皓之)의 연구가 효시이다.¹⁵⁾ 이미 1970년대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진 도리고에는 1980년대에 시가현(滋賀縣) 비와호(琵琶湖)에 관한 연구¹⁶⁾를 정력적으로 전개했다. 그 가운데 「생활환경주의」¹⁷⁾라는 「느슨한 이태올로지」¹⁸⁾가 확립되었다. 「생활환경주의」는 「자연환경주의」와 「근대기술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주의」와는 자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원시림은 절대 베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한밭이라도 밟아서 안 된다는 극단적인 견해이다. 현재 자연보호 시민운동으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절대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많이 나타난다.

한편 「근대기술주의」는 기술로 모두 해결하는 합리성을 추구한 방식으로 행정 대책 등으로 빈번하게 채용되어 왔다. 예를 들면 주민을 홍수로부터 지킨다는 목적으로 강을 직선으로 고치고 해안과 강바닥을 콘크리트로 간단하게 굳힌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의 생활을 파괴할 수도 있다.¹⁹⁾ 「생활환경주의」는 해당사회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서, 원래 존재하는 문화와 기술, 가치관과 주민에 의한 의사를 중시하고, 자연과의 관련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운동이다. 그것은 지역주민이 자연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한다는 「압력」에 의한 것이야말로 자연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압력」의 유효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연과

14) 野本寛一, 『生態民俗學序説』(일본: 白水社, 1987), 17쪽.

15) 鳥越皓之, 『はしがき』, 鳥越皓之編 『試みとしての環境民俗學』(일본: 雄山閣出版 1994)

16) 鳥越皓之, 『方法としての環境史』, 鳥越皓之・嘉田由紀子編 『水と人の環境史』(일본: 御茶の水書房, 1984), 322~341쪽.

鳥越皓之編, 『環境問題の社會理論』(일본: 御茶の水書房 1989)

17) 鳥越皓之, 『方法としての環境史』, 鳥越皓之・嘉田由紀子編 『水と人の環境史』(일본: 御茶の水書房 1984)

18) 鳥越皓之, 『環境社會學の理論と實踐』(일본: 有斐閣, 1997), 10쪽.

19) 鳥越皓之, 『環境社會學の理論と實踐』(일본: 有斐閣, 1997), 10~12쪽.

관계해온 전승적 사실, 다시 말해서 민속학적인 식견이 응용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토지 소유제도는 근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확립되었지만, 그것은 당연히 전근대적인 각지의 제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상황은 수준 높게 또한 획일적으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일본에 있어서도 따지고 보면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도리고에는 사유권 또는 사적 이용을 공동체로써 제어하는 전승적인 일본 각지의 토지소유의 이중성에 주목하고 그 사회 시스템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기적인 활동을 지역사회의 의지에 따라서 제어하는 사회 시스템이 일본이 근대화하는 가운데 파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구축된다고 도리고에는 주장하고 실제로 지역정책에 반영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생활환경주의」가 일본이라는 큰 국가 수준의 조직과는 대항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공동체, 지역이라는 생활가운데에 실제로 밀접하게 관계되는 작은 단위에서 시작한 사상이다. 그것은 일본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개괄적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와 지구규모의 획일화 -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글버라이즘(globalism)-에 대항하는 재지주의(在地主義)의 사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V. 정리

이상에서 자연에 관련된 민속연구의 두드러지는 흐름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이 3가지의 조류를 이해한 다음, 일본의 2000년대의 자연을 둘러싼 민속연구가 이루어진다고 예상된다.

자연을 둘러싼 민속연구의 제1조류인 「생태민속학」은 역사·환경적, 예정조화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점은, 자연을 둘러싼 민속연구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민속학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먼저 이것을

극복하는 일을 민속학에서 우선해야 한다. 극복한 다음 중후한 민속지적 기술을 축적해가는 것은, 자연과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민속학 이외의 제분야 또는 일반 사회로 전달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제2의 조류에 의해 제시된 마이너 서브시스템의 시점은 자연을 둘러싼 제 활동으로의 다각적인 시점을 가지고 자연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노동과 기술의 상태를 문제삼는 안티 테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제3의 조류로 평가된 농촌사회의 자연을 둘러싼 전승적 사회 시스템의 실태는 근대의 사상과 현지의 사상이 어긋남에 따라서 생긴 문제를 제검토하게 되고,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한다라는 현실의 문제해결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

이상의 3가지 조류는 말하자면 전승된 민속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민속학의 선두자 야나가타(柳田國男)는 「학문구세(學問救世)」, “우리들은 학문이 실용의 종(僕)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왜 농민은 가난해야만 하나”²⁰⁾라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고, 민속학이 현실사회로 기여하는 실천적 학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일본민속학자에게 표어로서 여러 번 인용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실천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을 둘러싼 민속연구는 이와 같이 현대사회 안에서의 민속학의 실천성을 회복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이후에 더욱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된다.

20) 柳田國男, 『郷土生活の研究法』(일본: 刀江書院, 1935), 92~93쪽.

韓國民俗學 제34집

2001년 12월 26일 印刷

2001년 12월 30일 發行

발행처 : 韓國民俗學會

발행인 : 崔雲植

주소 : (136-7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복규 교수 연구실 내

전화 : (02) 940-7238

팩스 : (02) 393-8236

홈페이지 주소 : www.kofos.or.kr

이메일 : bky5587@empal.com

인쇄처 : 圖書出版 民俗苑

주소 : (153-035)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20-33 한광빌딩 B - 1호

전화 : (02) 805-3320, 806-3320

팩스 : (02) 802-3346

이메일 : minsok1@chollian.net

등록 : 제18-1호

ISSN 1229-6953

값 16,000원